



以来、この池は鰻池と呼ばれ、村人たちはここのうなぎを捕ることを禁じてきたという。

Ever since that time, this pond has been called Unagi (eel) pond. Villagers have prohibited catching eels here.

그 후, 그 호수는 우나기 (장어) 호수라고 불리웠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의 장어 포획을 금지했다고 한다.

之后，此池就被称为鰻池、村民们也就禁止在这里捕捉鰻鱼了。

之後，此池就被稱為鰻池、村民們也就禁止在這裡捕捉鰻魚了。



ところが、池の底から大うなぎが姿を現し、切り開いたところに横たわり、水の流れ出るのをふさいでしまった。そこで、大うなぎの切身を切り裂いたところ、大うなぎは片身のまま池の底に逃げ、そのまま生き続けた。

However, a giant eel appeared from the bottom of the pond, and he lied down at the open site and clogged the broken part of the pond. When people slit the giant eel, he became half a body, but was able to flee to the bottom of the pond and continued to survive.

그런데 호수 바닥에서 큰 장어가 모습을 드러내며 개간한 바닥에 가로로 누워 흘러 보내던 물을 다시 막아 버렸다. 그리하여 그 큰 장어의 한쪽 살을 베었음에도 남아있는 몸으로 호수의 바닥으로 도망쳐 생명을 이었다.

就在这时，从池底游出了一条大鰻鱼，它将身躯横堵在被凿开的开口处把水堵住了。直到身体被切开时，大鰻鱼才拖着受伤的半个身子逃到了池底，就这样生存了下来。

就在這時，從池底遊出了一條大鰻魚，它將身軀橫堵在被鑿開的開口處把水堵住了。直到身體被切開時，大鰻魚才拖着受傷的半個身子逃到了池底，就這樣生存了下來。



昔、鰻池の水を流し出してしまうえば立派な水田ができるのでないかと、池の一方の低いところを切り開く工事を始めた。

Once upon a time, people thought that they would create a good rice paddy field if they drained the water from Unagi Pond. Thus construction work was undertaken to cut open the lower part of the pond.

옛날에 우나기 호수에 물을 흘려 보내면 좋은 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고 호수의 낮은 곳에서부터 개간 공사를 시작하였다.

从前，人们认为如果把鰻池的水放干就能做成很肥沃的稻田，于是，在鰻池一边的很低的地方开凿了。

從前，人們認為如果把鰻池的水放乾就能做成很肥沃的稻田，於是，在鰻池一邊的很低的地方開鑿了。



絵：木場 紗弥  
Koba Saya

日本語 鰻池の大うなぎ

English Giant Eel at Unagi Pond

한글 우나기 호수의 큰 장어

简体字 鰻池中的大鰻鱼

繁体字 鰻池中的大鰻魚